

BEHIND EVERY SCENES

가구 예술가 최병훈은 그가 사용하는 모든
재료 속에서 숨은 세월과 시간의 흐름을 발견한다.

WRITER CHUNG YUN JOO



1 'Afterimage of Beginning 07-244', 2007, 1740×550×900cm, Laminated Walnut Veneer(Black Varnished) On Beech Veneer, Black Granite. **2** '아트 퍼니처'라는 단어를 국내에서 처음 사용하며 가구의 예술적 존재감을 더한 가구 예술가 최병훈. **3** 최병훈의 작품들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와 질감을 최대한 살리는 그의 스타일을 담고 있다.

left page 파리의 유명 디자인 가구 갤러리인 프랑수아 라파누르 갤러리 다운타운에서 최병훈의 개인전이 열렸다. 나무와 돌을 조합한 미니멀한 작품들은 많은 이의 시선과 주목을 받았다.

2



가구 예술가 최병훈은 자신의 직업과 작품의 가치를 스스로 명명한 사람이다.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예술적인 오브제가 되는 가구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을 가구 예술가라 칭한 것이다. 작업을 시작했던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40년은 그가 처음 사용한 '아트 퍼니처(Art Furniture)'라는 단어를 분주하고 치열하게 증명한 시간이었다. 다행히도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서 현재 그의 가구와 조각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파리 장식미술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독일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뮤지엄에 소장되어 있으며, 서울 정동길에 놓인 예술적인 벤치, 서울공예박물관의 안내 데스크와 원목 수납장 역시 그의 작품이다. 더불어 그를 빠르게 주목한 뉴욕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와 파리 프랑수아 라파누르 갤러리 다운타운의 전속 작가이기도 하다.

나무, 그리고 돌을 기반으로 자연 그대로의 형태와 질감, 색상을 살린 그의 작품들은 목직하면서도 섬세하고 아름답다. 예술계에서는 원시적이고도 이질적인 질감을 지닌 재료들이 조합하고 겹치며 파생되는 신선함에 감탄해 그에게 끊임없이 러브 콜을 보내고 있다. 특히 2017년 미국 휴스턴 미술관에 영구 설치된 '선비의 길(Scholar's Way)'은 먹처럼 검은 세 개의 현무암 기둥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형태로 동양적인 힘과 사상을 함께 표현한다는 극찬을 받았다. 그는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의뢰받은 작품에 몰두하고 있다. 파주에 위치한 작업실은 그에게 항상 무한한 영감과 고요한 휴식을 선사한다. 20여 년 전 홍대 목조형가구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직접 도면을 그리고 공간을 구상해 세운 이곳에서 그는 매일같이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다. 갖가지 색과 형태의 나무와 돌이 곳곳에 널려 있지만 허투루 놓인 것은 하나도 없다. 언젠가는 저 구석의 투박한 돌도 하나의 작품이 되어 빛을 볼 것이다. 최병훈은 항상 그때와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3



LH 1층 작업실이 온갖 작업으로 분주하다. 최근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나?
BH 아쉽게도 아직은 공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가능한 선에서는 중동 한 국가의 유명 국립미술관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얘기할 수 있겠다. 그곳 광장에 설치될 벤치 작품을 의뢰받아 디자인을 고심하고 있다. 국내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데, 마찬가지로 벤치 형태의 작품이 될 듯하다. 올해도 국내외로 무척 분주할 것 같다. 작업한 지 40년이 흘렀는데도 새로운 작품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여전히 마음이 설렌다.

LH 나무와 돌, 매일 보는 재료들 속에서 새로움을 찾고 저마다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듯하다.
BH 그래서 작업실 안팎에 재료가 가득한데도 늘 새로운 재료를 찾아다닌다. 특히 돌은 나만의 '전국 돌 지도'가 있을 정도로 곳곳을 많이도 다녔다. 보령시의 웅천읍에는 특유의 검은 광택이 나는 오석이 있고, 충주호 주변의 수석도 자연 그대로의 멋이 있다. 원하는 재료를 운명처럼 만날 때면 정말 행복하다.

LH 요즘 가장 흥미로운 소재는 무엇인가?
BH 나의 작업은 시작도 종심도 결국은 나무다. 나무는 살아 숨 쉬는 재료이기 때문에 온도, 습도와 같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걸 조절하는 게 참 어렵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데다 집 안에 온돌까지 있어 변수가 너무 많다. 40년이 넘었는데도 나무를 만질 때면 늘 긴장한다. 그래서 더욱 많이 깨닫고 탐구하고 싶은 재료다.



'Afterimage of Beginning 013-394',
3400×700×530cm, Basalt, Byung Hoon
CHOI, Friedman Benda Gallery.

LH 오래전부터 작품명에 '태초의 잔상(Afterimage of Beginning)'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 시리즈는 올해도 이어질 예정인가?

BH 천연 소재로 작업하다 보니 항상 자연의 생태와 흐름을 생각하게 된다. 재료들을 보며 이것이 생성되어 나에게 오기까지 그 안에 겹겹이 내재된 침묵의 시간과 역겹의 세월을 떠올린다. 그들과 호흡하며 숨겨진 흔적과 잔상을 마주하고 또 다른 형상으로 다듬는 것이 나의 작업인 셈이다. 새로운 단어가 머릿속에 도출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LH '잔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만의 울림이 있다. 언제 처음으로 사용했나?

BH 1993년 인사동 선화랑에서 열렸던 첫 개인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올해도 딱 30년이 됐다. '아트 퍼니처'라는 단어를 처음 공표한 전시이기도 해서 나에게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LH 다음 시리즈의 후보라고 할 만한 단어도 있나?

BH 그 후는 어떤 단어가 다가올지 나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그동안 내 전시의 주제였던 단어들을 보며 나 역시 단서를 찾고 있다. 침묵, 묵상, 영원, 일필휘지... 대부분 동양적 사유에 기반을 둔 개념인데, 그 단어들이 나의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속에 내재된 것들.

LH 해외에서 전시할 때마다 반응이 뜨겁다. 그들이 주목하고 감탄하는 작품의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BH 나는 태생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들은 갖고 있지 못한 것. 동양적인 감성과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작가들은 가질 수 없는 나만의 것을 작품 속에 펼치기 위해 늘 고민하는데, 결국 그것이 나만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언어들이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LH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전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BH 역시 첫 번째 개인전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반응이 좋아서 작가로서의 자신감과 앞으로 작업을 이어나갈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파리의 프랑수아 라파누르 갤러리 다운타운(François Laffanour Galerie Downtown)에서 열렸던 개인전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곳이 위치한 센가는 갤러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전시가 시작되던 날 거리 입구에서 갤러리까지 걸어가며 다른 갤러리들의 윈도를 보았는데, 내 작품이 다른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과 전혀 다른 느낌인 것을 보며 어떤 확신이 들었다. 두 전시 모두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어서 곧바로 다음 전시와 아트 페어 참여에 대한 계안을 받았다. 그리고 보니 한국, 미국, 프랑스에 나 자신을 소개했던 첫 전시들이 모두 기억에 남는다. 그런 전시들은 작가로서의 터닝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LH 어떤 분야에서든 유행이라는 게 있고 예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와는 관계없이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BH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유행은 피할 수 없다.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시대의 가치는 변하게 마련이다. 그 흐름에만 편승하다 보면 작가의 생명력마저 사라져버린다. 트렌드를 감안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가가 주목해야 하는 유행은 시대의 정신이다. 시대에 대한 눈을 항상 뜨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비주얼로 보이는 유행은 철학이나 깊이가 없는 겉모습일 뿐이니 나 역시 속지 않으려고 한다.

LH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한 분야에만 몰두한 베테랑도 어떤 한계나 고민을 느낄 때가 있을까?

BH 당연히 있다. 그것도 자주. 작가가 고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가 멈춰 있지 않는지, 별다른 흥미로움 없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건 아닌지를 가장 많이 걱정한다. 항상 더 나은 작품 세계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작가에게 고민이란 평생 수반되어야 할 문제다.

LH 예술가로 살아가며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BH 그만의 가치라는 것은 예술가에게 정말 중요하다.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그게 없다면 작가의 예술 세계와 세계관 역시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새로운 세계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에 대한 한계나 의구심이 느껴질 때도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럴 때는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작품 세계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LH 자신만의 가치와 정체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나?

BH 강원도 태백 태생인데, 떠올려보면 그 시절이 지금의 나에게 가장 귀중한 자산인 것 같다. 태백에서 온전히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그 후 서울로 유학을 갔지만 아직도 내게 태백에서의 나날은 생생하기만 하다. 딸기를 따러 태백산을 오르고 겨울이면 산비탈에서 썰매를 타고 개울에서 얼음 치기하던 기억이 모두 귀중하다. 도에서 자랐다면 과연 지금의 내가 존재했을까. 그때의 기억 때문에 지금까지 자연에 관한 재료를 찾으며 파고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LH 그림 그리기도 어릴 때부터 좋아했나?

BH 언제부터였는지 그 시작은 희미하지만 어린 시절 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9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세상의 모든 귀여움을 다 받고 자랐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서울로 먼저 유학 간 형과 누나들이 좋은 물감과 색연필을 보내주는 등 유복한 환경에서 실컷 그림을 그렸다. 산과 나무와 돌 같은 자연만 온통 보이니 그것만 줄곧 그렸지. 학창 시절에도 미술부에서 그림을 계속했다.

LH 그런데 전공으로는 회화가 아닌 디자인을 선택했다.

BH 1970년대는 산업화가 한창 이루어지던 시기여서 앞으로 디자인 쪽이 더 주목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회화에 대한 열망도 놓기 어려워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순수 작업을 계속했다. 당시에는 파인 아트에 비해 디자인이 예술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 앞으로 나의 작업과 작품이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으려면 그에 어울리는 의미와 용어가 필요하겠다 싶어 '아트 퍼니처'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 거다. 대학생이 국전에 출품하는 일이 흔치 않던 대학교 4학년 때 혼자 국전에 작품을 냈다.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공모전에서 수상해 내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결국 국전에 입상하면서 작가의 길을 걷게 됐다.

LH 작업실에서도 아트 퍼니처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알바 알토, 찰스 & 레이 임스, 웬들 캐슬, 시로 구라마타, 시모 헤이키라의 의자들이 다 모여 있다.

BH 찰스 & 레이 임스의 '라 세즈(La Chaise)'는 나의 오랜 위시 리스트다. 라운지 체어는 소장하고 있는데 언젠가 적당한 기회가 오면 '라 세즈'의 꿈도 이룰 것이라 생각한다. 이탈리아 건축가 안드레아 브란치의 캐비닛 시리즈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다. 나무와 알루미늄을 사용한 작품으로 굉장히 실험적인 디자인이다. 1938년생인데도 여전히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를 보며 다시금 자극받고 귀감으로 삼게 된다.

LH 작업실에 클래식 FM의 선율이 계속 흐르고 있다. 라디오 음악 외에 요즘 많이 듣는 음악이 있나?

BH 저녁에 작업실 주변을 산책하면서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의 음악을 듣는다. 그중 '솔베이지의 노래'를 가장 좋아한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안예은이라는 젊은 뮤지션의 노래도 자주 듣고 있다. 국악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상사화'라는 곡을 듣다 보면 '와, 이 친구 천재구나' 생각하게 된다. 1층에서 소음에 문혀 작업하다가 2층으로 올라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순간이 내게는 온전한 휴식이며 환기다. 그 고요한 시간을 즐기고 나면 다시금 작업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K]



2



1



3

1 'Afterimage of Beginning 017~487', 3680×760×660cm, Basalt_a.
2 뉴욕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 소속 작가로 참여했던 2015년 디자인 마이애미/바젤.
3 'Afterimage of Beginning 021~565', 2021, 1200×300×750cm, Ottchil on Red Oak, Natural Stone.
4 서울공예박물관 로비에 놓인 작품들. 480cm 길이의 인도네시아산 자연석으로 만든 데스크가 눈길을 끈다. 맞은편에는 조선시대 원목장을 재해석한 흑색 원목 수납장을 제작해 설치했다.

4

